

부산지역 의사들의 특성에 관한 조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지도: 김 돈 균 부교수>

김 준 연

—Abstract—

An Investiga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Doctors in Busan Area

Joon Yun Kim, M. D.

Dept. of Prev. Med., College of Medicine, Busan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Assoc. Prof. Don Kyoung Kim, M. D.)

To find a basic study for manpower of physicians and medical care systems in Busan, author has studied towards 1,069 doctors who had taken the regular report in 1973, residing in Busan Cit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1 to August 31, 1973 and the findings &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study for distributions, characteristics, employment of doctors and some medical system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atio between doctor and populations in Busan City was 1:1,887.
2. The doctors who graduated from Busan Medical College were 438 as the most proportion (40.9%).
3. Sex distribution of doctors revealed male 970, female 99 and those belonging to the 30-39 age group were as the most proportion (41.0%).
4. The doctors who had faith in Christianity were the highest (22.3%).
5. By the opening year of clinics, there was increasing tendency after 1950, especially during 1970-1973.
6. At that time of investigation, the doctors who had private clinics were 673 (67.3%) and nonemployees were 27 (2.5%).
7. The total Medical Specialists in Busan were 519, and among them the Internal Medicine Specialists were the highest proportion (16.2%).
8. The clinics employing the disqualified nurse-aids were 237 (22.2%).
9. Most of doctors (81.8%) had opposed attitude to the establishment of new medical colleges.
10. More than half of the doctors (59.8%) agreed to the functional division between Physicians and Pharmacists.
11. The ratio of agreement to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public medical insurances was 68.7%.
12. The opinion by opening hospital-clinics at Myeon for administrative measures for doctorless rural area was the highest proportion.
13. The doctors who replied as low state of confidence of the citizens to the doctors-themselves were 691 (64.6%).

* 본 논문의 요지는 1973년 10월 제25차 대한 예방의학회 학술대회 석상에서 발표되었음.

I. 서 론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그 지역 보건문제를 파악하고자 할 때 불가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의사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의사의 역할은 그만큼 막중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적정인구와 적정의사수에 대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이들 논의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대 인구비는 1:2,963으로써¹⁾ 일부 선진국들(미국 1:669, 일본 1:898, 호주 1:540, 영국 1:855)²⁾에 비한다면 아직도 많은 수의 의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의 경우는 의사 대 인구의 비가 1:1,887³⁾으로써 전국적인 것에 비하여 의사의 수가 부산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아직도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인구에 대한 의사수급의 적정선을 모색하여 그 수요와 공급을 상치시킨다는 것은 여러 특수성과 더불어 이에 관여하는 요인도 다양 각색인 까닭에 매우 곤란하다 함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의 의사들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여 이해하는 것은 향후 의사수급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기초가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오늘날까지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의사들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전국적인 의사실태조사의 일부로서 조사된 적은 있으나⁴⁾ 부산지역의 의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파악을 실시한 것은 매우 희소함으로 저자는 앞으로의 부산시 의사수급 문제를 연구하여 불 기초작업으로서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의사들의 실태를 조사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973년도 정기 의사신고를 필한 부산지역의 의사 1,069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조사는 1973년 7월 1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에 걸쳐 미리 준비된 설문지에 의하여 실시하였고, 조사원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원과 본대학 2학년 학생들로서 조사실시전에 설문내용과 조사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내용은 의사들의 분포, 일반적인 특성, 개업상태, 보건행정에 대한 의견등 총 32항목이었다.

III. 조사성적

1. 의사의 분포

의사들의 각 구별 분포상태는 표 1에서와 같이 서구

261명, 중구 177명, 영도구 45명, 부산진구 234명, 동구 231명, 동래구 121명이며, 각 구별 의사 대 인구의 비는 서구 1:1,331, 중구 1:689, 영도구 1:4,275, 부산진구 1:2,912, 동구 1:1,092 및 동래구 1:3,482이고 전체 의사 대 총 부산시 인구의 비는 1:1,887이었다.

Table 1. The Distribution of Doctors by Area

Area	Content	No. of Population	No. of Doctors	Doctor: Population
Seo-ku		345,959	261	1 : 1,331
Jung-ku		121,885	177	1 : 689
Young do-ku		192,365	45	1 : 4,275
Busanjin-ku		681,400	234	1 : 2,912
Dong-ku		252,212	231	1 : 1,092
Dongrae-ku		421,341	121	1 : 3,482
Total		2,015,162	1,069	1 : 1,887

한편 부산시내 의사들의 출신학교별 분포상태를 볼때 기타군을 제외하면 표 2에서와 같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 438명(40.9%)으로 수위이며 다음은 경북의대 출신 204명(19.1%), 서울의대 출신 127명(11.9%), 고려의대 출신(전신포함) 57명(5.3%) 등의 순서이고,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은 36명(일본 28, 중국 8)이었다.

2. 의사들의 일반적 특성

의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상태는 다음과 같다.

가) 연령 및 성별 분포

표 3-a는 의사들의 연령별 성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성별로는 전체 의사(1,069명) 중 남자는 970명(90.7%)이고 여의사는 99명(9.3%)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수가 훨씬 많은 편이고 지역별로는 여자는 동구, 남자는 부산진구, 동구 및 중구에서 각각 많은 수를 정하고 있다.

한편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보아 30~39세군이 438명(41.0%)으로 수위이며 다음 40~49세군(301명), 50~59세군(159명), 29세 이하군(95명) 및 60세 이상군(76명)의 순서이었다.

연령별 분포를 출신대학별로 보면 표 3-b에서와 같이 부산의대 출신은 30대군이 290명으로 타연령군에 비하여 많으며 경북의대, 연세의대, 서울의대, 전남의대 및

Table 2. The Distribution of Doctors by Graduated School

Area	School											Japan	China	Others	Total	
	Busan M. C.	Kyung-Buk M. C.	Seoul M. C.	Yon-Sei M. C.	Jun-Nam M. C.	Korea M. C.	Ewha M. C.	Catholic M. C.	Pyung-Yang M. C.	Ham-Hung M. C.						
B. N. U. H. *	114	4	14	1	—	—	1	—	—	—	—	—	—	—	—	134
Seo-ku	38	35	19	4	4	8	1	—	3	1	—	3	11	127		
Jung-ku	56	44	21	10	2	7	4	2	8	2	8	1	12	177		
Youngdo-ku	14	5	6	3	7	—	3	—	2	—	2	—	3	45		
Busanjin-ku	90	45	28	9	15	17	3	—	1	1	8	—	17	234		
Dong-ku	82	42	33	12	5	19	12	2	3	1	5	2	13	231		
Dongrae-ku	44	29	6	8	10	6	2	1	—	—	5	2	8	121		
Total	438	204	127	47	43	57	26	5	17	5	28	8	64	1,069		
%	40.9	19.1	11.9	4.4	4.0	5.3	2.4	0.5	1.6	0.5	2.6	0.8	6.0	100.0		

* :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able 3-a. The Distribution of Doctors by Age and Sex

Area	B. N. U. H.		Seo-ku		Jung-ku		Youngdo-ku		Busanjin-ku		Dong-ku		Dongrae-ku		Subtotal		Total (%)
	M	F	M	F	M	F	M	F	M	F	M	F	M	F	M	F	
~29	53	4	2	2	13	1	—	—	3	—	6	7	4	—	81	14	95 (8.8)
30~39	54	—	41	6	47	5	13	2	100	4	92	13	56	5	403	35	438(41.0)
40~49	16	—	37	4	52	7	16	1	72	8	52	15	19	2	264	37	301(28.2)
50~59	7	—	23	1	32	1	7	1	29	3	28	1	22	4	148	11	159(14.9)
60~	—	—	11	—	19	—	4	1	15	—	16	1	9	—	74	2	76 (7.1)
Total	130	4	114	13	163	14	40	5	219	15	194	37	110	11	970	99	1,069(100.0)

Table 3-b. The Distribution of Doctors by Age and Graduated School

Age	School											Japan	China	Others	Total
	Busan	Kyung-Buk	Seoul	Yon-Sei	Jun-Nam	Korea	Ewha	Catholic	Pyung-Yang	Ham-Hung					
~29	95	2	—	—	—	3	4	—	—	—	—	—	—	—	104
30~34	126	8	6	—	4	2	11	—	—	—	—	—	—	—	157
35~39	164	62	16	1	17	9	6	3	—	—	—	—	—	1	279
40~44	42	57	22	11	13	23	5	2	—	—	—	—	—	2	177
45~49	8	36	43	9	8	11	—	—	1	3	—	—	—	5	124
50~54	3	15	17	9	1	7	—	—	3	2	10	3	18	88	
55~59	—	13	7	5	—	2	—	—	6	—	10	4	20	64	
60~	—	11	16	12	—	—	—	—	7	—	8	1	21	76	
Total	438	204	127	47	43	57	26	5	17	5	28	8	64	1,069	

Table 4. The Distribution of Doctors by Religion

Religion	Buddhist	Christi- nity	Catholic	Confucia- nism	Cheondo- ism	Others	No Reli- gion	Total
Number	176	239	101	14	4	18	517	1,069
(%)	(16.5)	(22.3)	(9.5)	(1.3)	(0.4)	(1.7)	(48.3)	(100.0)

Table 5. The Status of Subscribing Newspaper and Journal

Number and Kinds of N. & J.	1		2		3		4		5		Foreign Country		No Subs- cription		No Res- ponse	
	N.	J.	N.	J.	N.	J.	N.	J.	N.	J.	N.	J.	N.	J.	N.	J.
Number	384	459	270	246	112	99	25	14	39	48	95	106	53	83	91	14
(%)	(36.0)	(43.0)	(25.3)	(22.9)	(10.4)	(9.3)	(2.3)	(1.3)	(3.6)	(4.5)	(8.9)	(9.5)	(5.0)	(7.8)	(8.5)	(1.3)

Table 6. The Distribution of the Opening Year of Clinic

Area	Year							
	'70~73	'65~69	'60~64	'55~59	'50~54	'45~49	~'44	
Seo-ku	28	14	15	10	6	2	2	
Jung-ku	40	23	17	10	12	8	6	
Yungdo-ku	11	11	6	5	—	2	4	
Busanjin-ku	89	58	40	11	7	5	2	
Dong-ku	46	40	25	10	5	2	5	
Dongrae-ku	37	24	13	3	3	3	14	
Total	251	170	116	49	33	22	33	
%	37.1	25.3	17.2	7.3	4.9	3.3	4.9	

고려시대 출신들은 모두 40대에서 각각 타연령층보다 고율을 시현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부산의대, 이화 의대 및 카톨릭의대 출신 등은 타대학 출신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이 많은 수를 정하고 있다.

나) 종교

의사들중 유종교자는 551명(51.7%)이고 그중 불교신자는 176명(16.5%), 기독교 239명(22.3%), 천주교 101명(9.5%) 등이었고 한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의사는 517명(48.3%)으로 종교를 가진 의사보다 약간 적은 편이었다(표 4 참조).

다) 문화접촉상태

의사들의 일부 문화접촉상태를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아보면 표 5에서와 같이 1종류의 신문구독자 384명(36.0%), 2종류 270명(25.3%), 3종류 112명(10.4%) 등을 포함하여 외국신문만을 구독하는 의사

95명(8.9%) 등이었고, 잡지의 경우는 1종류 459명(43.0%), 2종류 246명(22.9%) 및 외국잡지만을 구독하는 의사 106명(9.9%) 등으로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의사들의 수가 전혀 구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훨씬 많았다.

3. 취업 및 개업내용

가) 취업 혹은 개설 연도

표 6은 부산 시내에 개업 혹은 개설(이하 개업으로함) 중인 병·의원의 연도별 분포를 보인 것으로 1944년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개업한 의사는 33명(4.9%), 1945~49년 동안이 22명(3.3%), 1950~54년 사이에 개업을 한 의사는 33명(4.9%), 1955~59년 49명(7.3%), 1960~64년 116명(17.2%), 1965~69년 170명(25.3%) 및 1970~73년 5월사이에 개업한 수는 251명(37.1%)으로 1950년 이후

Table 7. The State of Employment of Doctors by Area

Area	Content	Employee				None
		Private Clinic	The teaching profession	Hospital-Clinic	Industry & Public Institution	
B. N. U. H.	—	51	83	—	—	
Seo-ku	76	—	38	6	7	
Jung-ku	116	—	50	6	5	
Youngdo-ku	39	—	—	3	3	
Busanjin-ku	212	—	17	2	3	
Dong-ku	133	—	93	1	4	
Dongrae-ku	97	—	17	2	5	
Total	673	51	298	20	27	
(%)	(63.0)	(4.8)	(27.8)	(1.9)	(2.5)	

Table 8. The Distribution of Medical Specialists by Area

Department	Area							Total(%)
	Seo-ku	Jung-ku	Young-do-ku	Busanjin-ku	Dong-ku	Dongrae-ku	Others*	
Int. Medicine	17	17	1	14	16	13	6	84 (16.2)
Gen. Surgery	11	14	5	25	10	1	14	81 (15.6)
Orthopaedics	2	5	—	10	8	3	7	35 (6.7)
Neurosurgery	—	2	—	6	6	1	2	17 (3.3)
Pediatrics	8	8	—	19	7	5	12	59 (11.4)
Ob.-Gyn.	8	8	3	26	14	7	12	78 (15.0)
Psychiatry	—	2	—	6	2	3	3	16 (3.1)
Ophthalmology	2	7	1	3	2	3	4	22 (4.2)
Dermatology	—	2	—	1	1	—	3	7 (1.3)
Tuberculosis	—	3	—	1	3	—	4	11 (2.1)
Radiology	1	2	—	2	1	1	5	12 (2.3)
Anesthesiology	—	1	—	3	2	—	7	13 (2.5)
Clinical Pathology	—	—	—	—	—	—	3	3 (0.6)
Anato. Pathology	1	1	—	—	1	—	3	6 (1.2)
Urology	—	12	—	10	4	—	4	30 (5.8)
E. N. T.	1	11	1	8	6	1	6	34 (6.6)
Prev. Medicine	2	1	—	2	1	—	1	7 (1.3)
Thoracic Surgery	—	—	—	—	1	—	3	4 (0.8)
Total	53	97	11	136	85	39	98	519(100.0)

*: Including B. N. U. H., Baptist, Maryknoll, Gospel, St. Benedict, Ill Sin, Busan City Hosp. Maria Hosp. and Busan Children Hospital.

부터는 개업의사수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특히 1965년이 후에는 더욱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단 5년간별).

나) 취업상태별 분포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업의는 전체의 63.0%인

Table 9. The State of Employment of Nurse and Nurse Aid

Content	Employ only Nurse	Employ Nurse & Nurse Aid	Employ Nurse & Disqualified Nurse Aid	Employ Nurse, Nurse Aid & Disqualified Nurse Aid	Employ only Nurse Aid	Employ Nurse Aid & Disqualified Nurse Aid	Employ only Disqualified Nurse Aid	Nothing
Number	23	61	17	26	224	85	195	42
%	2.2	5.7	1.6	2.4	21.0	7.9	18.3	3.9

673명으로 다수이며 병·의원(종합병원 포함)에 종사하는 의사는 298명(27.8%), 교직자는 51명(4.8%), 공사기관 근무자 20명(1.9%) 및 미취업자 27명(2.5%) 등이었다.

다) 전문과목별 분포

부산시 보건과 및 각 학회 부산지회에 신고된 전문과목별 분포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과 84명(1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일반의과 81명(15.6%), 산부인과 78명(15.0%) 및 소아과 59명(11.4%)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지역별 분포상황을 보면 부산진구가 136명으로 최고를 점하고 있었으며 다음이 중구 97명, 동구 85명, 서구 53명, 동래구 39명 및 영도구 11명의 순위였다. 기타가 98명으로 많은 이유는 종합병원인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부산 시내 여러 큰 병원의 전문의 즉 비개업 전문의가 합쳐졌기 때문이다. 전문의 수에 있어서 전문의 자격을 둘 이상 취득하고 있는 의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실제의 전문의사의 수는 519명 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간호원 취업현황

개업중인 병·의원 673 개소중 무응답군을 제외하면 정규간호원을 채용하고 있는 곳은 127개소이며 무자격 간호원만 채용하고 있는 곳은 195개소이었다. 그리고 436개소의 병·의원은 일단 자격을 갖춘 보조간호원 혹은(및) 정규간호원을 채용하고 있었다.

4. 의료제도 및 보건행정에 관한 태도

가) 의과대학 증설에 대한 태도

1,069명의 정기신고를 필한 의사중 향후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증설에 대한 태도는 표 10에서와 같이 찬성으로 응답한 의사는 94명(8.8%)인 반면에 반대를 나타낸 수는 875명(81.8%)으로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과대학 증설에 대하여는 반대의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나) 의약분업에 대한 태도

표 11은 의사들의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을 나타낸 것

Table 10. The Attitud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Medical College

Content Age	Agree (%)	Oppose (%)	No Response (%)
~29	8.5	84.0	7.5
30~39	8.5	84.2	7.3
40~49	9.3	79.4	11.3
50~59	9.4	78.6	12.0
60~	7.9	81.5	8.6
Total (%)	8.8	81.8	9.4

Table 11. The Attitude to the Functional Division between Physicians and Pharmacists

Content Age	Agree (%)	Oppose (%)	No Response (%)
~29	78.7	11.7	9.6
30~39	66.4	23.3	10.3
40~49	50.8	36.9	13.3
50~59	59.1	28.3	12.6
60~	35.5	48.7	15.8
Total (%)	59.8	28.7	11.5

으로 전체 의사중 59.8%(640명)에 해당하는 의사들은 의약분업제도를 찬성 내지 희망하고 있었으며 28.7%(306명)는 분업제도에 대하여 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한편 연령별로는 40대 이하군에서는 40대 이상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찬성율이 높았으며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의사들 중에서는 40대 이상군이 그 이하군 보다 비교적 높은 율을 보였다(표 11

참조).

다) 의료보험 실시에 대한 태도

전체 의사(1,069명) 중 장래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희망 내지 찬성하는 의사는 735명(68.7%)이었고 반대의 태도를 보인 의사수는 146명(13.7%)으로 상당수의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실시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전자의 의약분업 경우와 마찬가지로 40대 이하군의 의사들은 의료보험 실시에 대하여 40대 이상군보다 높은 찬성율을 보였고 반면에 의료 보험제도에 대하여 반대의 태도는 40대 이상군에서 그 이하군에 비해 고율이었다.

라) 무의촌 해결방안에 대한 태도

Table 12. The Attitude to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Public Medical Insurance

Content Age	Agree (%)	Oppose (%)	No Response (%)
~29	69.1	9.6	21.3
30~39	73.5	13.3	13.2
40~49	66.1	14.6	19.3
50~59	64.8	14.5	20.7
60~	59.2	15.8	25.0
Total (%)	68.7	13.7	17.6

의사들이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무의촌 해결방법에 대하여 설문내용중 들을 선택하게 하여 조사한 결과 장부나 관계기관에서 군 혹은 면단위로 병·의원을 개설하여야 타당하다고(의사 파견 혹은 취업) 사료하는 율이 75.4%이었고 다음으로 지역주민, 의사 및 관계기관의 상호협조적 노력에 의하여 그 지역이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보기: 의료협동조합 등) 함이 옳다고 주장하는 율이 51.2%이었다.

한편 의과대학 졸업생(면허 취득전)이나 재학생의 파견 등은 아주 낮은 율을 각각 보였다.

마) 진료수입에 대한 태도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들의 진료수입이 자신의 노력과 투자에 비하여 타직업인 보다 적다라고 응답한 수는 657명(61.4%)이었고 반대로 많다는 경우는 68명(6.4%)이었으며 적당하다고 답한 의사는 309명(28.9%)으로 반수 이상의 의사들은 수입면에서 보다 향상을 희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수입이 많다고 답한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고율이었고 반대로 수입이 적다라고 답한 경우는 고연령층일수록 저율이었다.

바) 의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환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표 15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 신뢰도가 높은 편으로 간주하고 있는 의사는 불과 92명(8.6%)이었고 보통이라고 답한 의사는 175명(16.4%)이었으며 낮다라고 답한 의사는 691명(64.5%)으로 의사 자신들이 생각할때

Table 13. The Opinion to th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Doctorless Rural Area

Content Age	A	B	C	D	E	F	G	H
~ 29	24.5	13.9	10.6	2.1	14.9	78.7	33.0	22.4
30 ~ 39	15.3	10.1	15.3	3.0	10.1	82.2	48.9	15.3
40 ~ 49	15.0	11.6	16.3	3.3	16.3	69.1	55.8	12.6
50 ~ 59	9.4	4.4	24.5	1.3	12.0	74.9	52.8	20.8
60 ~	14.5	10.5	11.9	2.6	15.8	57.9	65.8	21.0
Total (%)	15.1	9.9	16.3	2.7	12.9	75.4	51.2	16.4

Note: A: Dispatch of Apprentice Doctor.

B: Dispatch of Medical College Graduate (pre-certification)

C: Service before Open.

D: Dispatch of Medical College Student.

E: Dispatch before oversea service.

F: Opening of Hospital-Clinics by unit of Myeon.

G: The Voluntary Effort of Regional Population, Medical Doctor and the Government of Office concerned.

H: No Response

Table 14. The Attitude to the Income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Content	Appropriate (%)	High (%)	Low (%)	No Reply
Age				
~29	9.6	80.9	3.2	6.3
30~39	23.7	68.5	4.8	3.0
40~49	37.5	55.5	5.0	2.0
50~59	34.6	50.3	12.0	3.1
60~	36.8	43.4	13.2	6.6
Total (%)	23.9	61.4	6.4	3.3

Table 15. The Degree of Confidence of Doctors to Citizens

Content	Average	High	Low	No Reply
Percent	8.6	16.4	64.6	10.4

시민에 대한 자신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나 떨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Ⅳ. 고 안

1. 의사분포

부산시의 각 지역 가운데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생활환경등 제반 조건이 양호한 중구의 의사대 인구비는 1:689이고 반대로 영도와 동래구의 경우처럼 그 비가 각각 1:4,275와 1:3,482로 고평인 것은 의사들의 의료행위 조건과 주민의 경제상태와는 서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1973년도 우리나라 의사 정기신고를 필한 의사(총 10,922명) 중 과반수 이상인 6,191명¹⁾의 의사들이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여 의사의 도시집중화 현상^{5,6,7)}이 현저한 양상과도 일맥 상통하다고 간주된다.

저자는 부산시 적정의료수급의 일부 방안으로 향후 의사들이 신규 개업장소를 택할 때에 의사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과밀한 지역 즉 영도나 부산진구 혹은 동래구를 선택하는 것도 의의있을 줄 안다.

한편 출신 대학별 분포에서 부산의대 출신의사가 전체의사의 40.9%(438명)로써 상위이고 다음 경북의대 출신이 204명(19.1%)인 것은 지역적인 까닭으로 간주되며 특히 부산의대 출신 의사들이 근년에 와서 해마다

타대학 출신에 비하여 심한 증가를 보임은 장래 부산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문제에 있어 부산의대 출신 의사들의 임무가 막중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의사의 일반적 특성

성별분포에서 남자는 970명이고 여자는 99명으로 여 의사에 비하여 남자의사가 절대 다수이고,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군이 8.8%, 30대 41.0%, 40대 28.2%, 50대 14.9% 및 60세 이상군 7.1%인 것은 심동⁸⁾의 우리나라 적정 의사 수급에 관한 고찰에서 1967년도 정기신고 의사의 연령분포를 29세 이하군 21.2%, 30대 45.2%, 40대 17.7%, 50대 10.9%, 60세 이상군 5.0%로 보고한 성적과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조사대상과 조사기간이 서로 상이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30대군이 상위인 것은 표 3-b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산의대 출신 의사가 월등히 많은 것에 연유한다고 사료되며 이는 부산의대의 연륜과 연관이 있다고 짐작된다.

종교별에서 종교를 가진 의사가 종교를 갖지 않은 의사보다 그 수가 많은 점과 종교를 가진 자 중에서도 기독교 '신자가 최고율을 점한 것은 부산'⁹⁾ 및 전국의 통계¹⁰⁾와는 아주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의사들의 「메스미디어」 이용도는 월등히 높아 신문과 잡지 구독을 전혀 하지 않는 수는 각각 53명(5.0%)과 83명(7.8%)에 불과하였고 특히 신문과 잡지에 있어 각각 2종 이상을 정기 구독하는 의사와, 외국 간행물을 구독하는 수가 많은 것은 의사들의 학식 및 생활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의사들이 이와 같이 문화접촉이 빈번한 것은 간행물을 통한 의약지식의 습득 내지는 교류와 사회적 환경의 이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된다.

3. 취업 및 개업내용

1960년 이후 특히 1965년도부터 개업의사의 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부산의대 출신들에 의한 사유로 간주되며 이러한 현상은 1963년도의 부산시내 총 의사가 433명, 1965년 688명, 1968년 820명, 1970년 874명, 1971년 902명, 1972년 1,010명¹¹⁾ 등으로 나타나 매년 부산시내의 의사가 증가된 것과 서로 일치함을 보였다.

취업상태별로는 정기신고를 필한 의사 1,069명중 673명의 의사가 개업(혹은 개설)중이고 교직자가 51명, 타병·의원에 종사하는 의사는 298명,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20명 그리고 미취업자가 27명으로 의료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의사는 전체의 90% 이상에 해당하였다. 한편 심동¹²⁾은 1967년도 정기신고

의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사들의 취업상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분야 종사자가 전체 의사의 약 70%라고 보고한 성적과는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편이나 저자의 생각으로는 의사들이 학교나 사업장 그리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개업을 포함한 전문적 의료분야 근무를 희망하였기에 이와 같이 의료분야 종사자가 많지 않나 생각된다. 부산시내에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앞으로는 의사들이 비단 개업 그 자체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서 개업 이외 공공기관의 종사자도 있어야 의사 자신들의 처신은 물론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전문의제도는 미국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 형식상 제도면에서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간주되며 이는 의술의 향상⁹⁾을 위해 있는 제도임이 틀림없다. 1965년 당시 부산시 총의사 732명 중 전문의수는 45명에 불과하였으나 7년후인 1973년 현재 정기신고를 필한 의사 1,069명 중 전문의수는 529명으로 전체의 49.5%를 점하고 있음은 일선진료 종사 혹은 후배 양성의 견지에서 보람된 결과라고 간주되나 의료군등 내지 완전치료 기회균등의 입장에서는 의학의 세분화로 인한 필연적인 결점이 장차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면에 대하여 다소 새로운 양상의 문젯점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사료되어 진다. 저자는 표 8의 제시가 앞으로 전문의로써 개설할 경우 그들의 개설장소 선택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의료법 시행령 제 24조 제 1항, 제 2항 및 3항¹⁰⁾은 의료기관에 있어 간호원과 간호보조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더우기 간호기록부의 보존은 의료법상 10년 간으로 되어 있어 병·의원에서의 간호원의 역할은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자의 성적중 개업중인 병·의원에서 정규간호원을 채용하고 있는 곳은 127개소(673개소중)이었고, 간호원이나 보조간호원(혹은 양자 모두)을 채용하고 있는 병·의원은 436개소이었으며 나머지 병·의원에서는 무자격간호요원(가칭)의 채용이나 혹은 간호원이나 간호보조원을 전혀 채용하고 있지 않았다(237개소).

사실 부산에는 부산의대 간호학과(부속간호학교 포함)를 위시하여 수개의 간호전문학교와 보조간호학원이 있는 만큼 간호원의 수급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므로 개업 의사들중 무자격간호원을 채용하고 있는 분이나 전혀 간호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의사들은 자격을 갖춘 간

호원을 채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의료제도 및 보건행정에 관한 태도

우리나라 적정 의사수급과 무의촌 해결 방안등의 일환으로 수년전 국내에서는 경희의대, 조선의대, 충남의대 등을 포함하여 수개의 신규 의과대학이 증설된 바 있었다. 장래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의 증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에서 찬성은 불과 8.8%에 지나지 않았고 반대의 의사를 나타낸 의사들은 80% 이상에 해당하였다. 이와같이 대다수의 의사들이 향후 우리나라 의과대학 증설 문제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피력한 것은 표 6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시내에서만도 연도별 개업의사의 수가 점증되었던 점을 감안할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

의약분업제도에 대해서는 오래전 부터 선진제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제도의 채택 여부로 많은 논의가 되어 왔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건설과 더불어 복지사회건설을 추진하는 시점에 있어 적정한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의약분업 실시가 한층 요망되고 있다.^{11, 12, 13, 14, 15, 16)}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중에서 찬성은 59.8%이었고 반대의 경우는 28.7%로 이는 1970년 한¹²⁾의 성적 즉 찬성 64.5%, 반대 25.6%와 대개 유사하였고 한편 박¹¹⁾의 성적인 개업약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찬성 61.5%, 반대 25.9%)와도 비슷하였다.

의료보험은 피보험자와 그 부양가족을 동시에 포괄하는 의료보장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제도로서 의료보장 시책의 최종 방안으로 기대되리만큼 중요하다¹⁷⁾ 조사대상 의사들중 63.7%에 해당되는 735명의 의사들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실시에 대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반대는 13.7%이었다.

1965년도 우리나라의 순무의면은 504이었고 1967년 551, 1969년 539, 1971년 483, 1972년 503 및 1973년 현재는 502로써¹⁾(단 수련의 파견 제외) 지난 수년간 정부나 의료관계기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수에 있어서 거의 변동이 없음은 정부나 관계기관은 물론 국민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금번 저자는 우리나라 무의면 해소책의 일환으로 저자의 주관적 무의면 해결방안 7가지중 의사들로 하여금 둘을 선택하게 하였던 바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면단위 병·의원을 개설하게 하는 방안과 지역주민, 의료인 및 관계기관의 자발적인 상호 노력(보기:의료협동조합 등)에 의한 해결 방안을 가장 지지하였다. 한편 정부에서 시행중인 수련의 파견을 포함한

여 의과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면허취득전)등의 무의촌 파견에 대해서는 찬성율이 낮았다.

의사들이 생각할때 시민들의 의사에 대한 신뢰감이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율이 81.0%인 것은 비록 그 평가기준이 주관적이긴 하나 향후 의사들의 개업 태도에 있어 개선 및 진전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된다.

V. 결 론

1973년 7월 1일부터 동년 8월말까지에 걸쳐 부산시내 의사들 중 1973년도 정기신고를 필한 의사 총 1,0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들의 분포 및 특성, 취업내용과 몇가지 의료제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산시내 의사(정기신고) 대인구 비는 1:1,887이었다.
2. 1,069명의 의사중 부산의대 출신이 438명(40.9%)으로 수위였다.
3. 남자 의사수는 970명이고 여의사는 99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41.0%)
4. 종교를 가진 의사중에는 기독교신자가 수위였다.
5. 개업 연도별로는 1950년 이후 점증양상이었으며 특히 1970~1973년은 급증을 보였다.
6. 조사당시 개업(개설)인은 673명(63.0%)였고, 미취업자는 27명(2.5%)였다.
7. 전문의는 총 519명이었고 그 중에서 일반내과 전문의가 가장 많았다.
8. 무자격 간호요원을 채용하고 있는 의원은 237개소(22.2%)이었다. (무응답 포함)
9. 대다수의 의사(81.8%)들은 의과대학 신규증설에 대하여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10. 과반수 이상(59.8%)의 의사들은 의약분업을 찬성하였다.
11. 의료보험제도 실시에 대한 찬성율은 68.7%였다.
12. 무의촌 해결 방법으로는 면단위 병·의원 개설안이 최고였다.
13. 시민에 대한 의사 자신들의 신뢰도가 낮다고 응

답한 의사는 691명(64.6%)였다.

(본 논문을 위하여 시종 지도하여 주신 김돈균(교수)님과 교실원 그리고 의과대학 현 3년생들께 심심한 감사사를 드립니다)

REFERENCES

1.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서울, 보건사회부 1973.
2. 총리부통계국: 국제통계요람, 일본, 대장성인쇄국, 1973.
3. 부산시: 부산통계연보, 부산, 부산시, 1973.
4. 대한의학협회: 1966년도 전국회원 실태조사 보고, 대한의학협회지, 10:419, 1967.
5. 권이혁: 공중보건학, 서울, 동명사, 1967.
6. 심상황의: 우리나라 적정의사 수급에 관한 고찰, 대한의학협회지, 12:361, 1969.
7. 권이혁: 우리나라 인구와 의사의 분포, 대한의학협회지, 12, 1969.
8.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제20회, 서울, 경제기획원, 1973.
9. 조동수: 의학박사 학위제도의 전문의 제도, 대한의학협회지, 10:87, 1967.
10. 고문사: 보건법령집, 고문사, 1974.
11. 박민수: 의약분업제도의 실시에 관한 기초조사, 공중보건잡지, 7:627, 1970.
12. 한영규: 의약분업제도 실시에대한 고찰, 공중보건잡지, 7:719, 1970.
13. 허 정: 보건행정본질론, 공중보건잡지, 4:61, 1967.
14. 조태호: 한국의 보건행정 및 그 기구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60.
15. 박동서: 행정학, 박영사, 1964.
16. 이종진: 의약분업에 대한 소고, 대한의학협회지, 10:175, 1967.
17. 허 정: 의료보험의 도입에 따른 의료공급의 제문제점에 대한 고찰, 대한의학협회지 13:33, 1970.